

지역 소식통

고창군, 읍성 앞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재운영

전북 고창군의 '읍성 앞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고창만의 특별한 맛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읍성 앞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사업(총사업비 1억7000만원)'을 모두 마무리하고 재운영에 들어갔다.

시원한 카페형 야외 테라스는 물론 한우마을 방향 출입구가 추가로 마련되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판매장은 '고창땅콩'으로 만든 다양한 상품들로 특화시켰다. 먼저 판매장에선 판매하는(시그니처메뉴) 케이크를 땅콩빵은 고창땅콩이 통으로 들어가 고소하고 달콤한 향을 전한다.

여기에 '땅콩아이스크림'도 빼놓을 수 없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위에 고소하고 씹스름한 맛의 으깬 땅콩을 듬뿍 뿌려주면 고창의 정이 담긴 특별한 땅콩 아이스크림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2억 투입 병해충 방제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병해충 예방과 방제 강화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말미름병 방제사업은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친환경 농기를 포함한 전체 병해충 방제사업에 14개 품목의 약제를 선정했다.

특히 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공급처도 지역농협과 일반농약사 모두 가능하게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해 78개 농촌진흥사업 추진

정읍시, 총 82억 8500만원 투입...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읍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부자 농촌 부자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82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학습단체와 청년 창업농 육성,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식량작물 분야와 소득작목 분야, 농촌사회 분야 등 3개 분야에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해 시는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학협동심의회를 열고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 78개 사

업, 182개소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을 비롯해 정읍시의 회 의원과 농업 관련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신청자의 사업 내용과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심의회에 상정했다.

심의 결과, 식량작물 분야에 환말미름병 방제사업 등 25개 사업에 46억 9500만원, 소득작목에는 원예 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10억 9000만원을 확정했다.

또 농촌사회분과는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등 33개 사업에 24억 99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완옥 소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소득향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정착 촉진으로 고령화된 농촌 인력구조를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첨단농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범사업을 홍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행복사업 대상지 등 주민의 편익과 관계된 현장을 중심으로 2022년 읍면 주요 사업 현장행정을 실시한다.

"주민 목소리 정확히 반영됐는지"

권익현 부안군수, 읍면 주민행복사업 대상지 현장행정

권익현 부안군수가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행복사업 대상지 등 주민의 편익과 관계된 현장을 중심으로 2022년 읍면 주요 사업 현장행정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그동안 주민행복사업 대상지 사업추진의 미진한 부분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세심히 점검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내실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권익현 군수는 현장행정 첫날 부안을 '종리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주산면 '신공마을 하수구 정비 현장' 등 주민행복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행정을 통해 읍면 주민행복사업 시행 전 대상지를 점검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역 곳곳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꼼꼼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행정은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련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업장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김영식 기자

고창군, 주요 결빙구간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

제설 대책 일환... 지역 내 급경사 도로에 설치

고창군청이 겨울철 결빙구간 제설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급경사 도로에 도로열선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구간은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인 고창읍 ▲청룡길(문화체육관~유진정 하이파트) 200m, ▲동산길(성산아파트 진입로)100m ▲남정2길(연흥세탁소~셋별유치원) 100m 총 3개소이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눈, 얼음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고창군은 강설로 인한 주민 불

편을 최소화하고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도로열선설치 사업비로 확보했으며, 오는 6월까지 3개 구간에 400m 열선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스팔트 도로면 아래에 설치되는 도로열선은 표면에 있는 감지 센서를 통해 강설 시 자동으로 작동, 열을 가해 눈을 녹이는 스마트 자동제어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폭설 시 즉시 눈을 녹여 선제 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해지며,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설방식이다.

고창군 김완철 건설도시과장은 "도로열선 설치를 통해 겨울철 폭설 시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에 힘을 실어 교통 정체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가짜 석유제품 근절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운영

부안군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는 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협력해 가짜 석유제품 신고 부스를 운영해 가짜 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신고 제도를 홍보하고 연료를 무상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가짜 석유로 주행 중 차량이 정차하는 사고나 장마철 석유제품에 빗물이 혼합돼 발생하는 연료 품질 저하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은 시니어 인력 4명이 2교대로 오전 1층 민원실 앞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제도 및 차량 연료 무상분석 제도를 안내한다.

차량 연료 분석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료채취 업체인 백미카서비스(부안군 부안읍 소재)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면 되며 채취된 시료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택배로 보내져 시험분석 후 신고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료채취 비용은 부안군에서, 택배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원한다.

단 현장에서 연료필터 등을 통해 쉽게 차량 연료를 채취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한다.

의제차 등 고가의 차량은 고객이 직영 정비센터에서 차량 연료를 채취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은 한국석유관리원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는 가짜 석



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까지 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를 활용해 안전한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영식 기자

고창군 성호도서관, 스마트 K-도서관 개관

고창군이 성호도서관 2층에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 K-도서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6천만원(국비 50% 포함)을 투입해 여가열람실을 리모델링하여 마련됐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나타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대와, 개인 방송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군민들에게 카메라 편집용 PC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가 마련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영상 제작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 창작공간 대어는 2월 21일부



터 09:00~12:00, 14:00~17:00(휴관일 점심시간 제외) 1일 3시간 주 2회 이용 할 수 있으며, 사용일 1주일전까지 전화, 방문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3월 18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개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나도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